

출판사 도서목록 발행현황과 문제점

소책자형태가 대부분...서지사항 기재 보다 충실해져야

출판사의 '얼굴'이라 할 '도서목록' 발행이 점차 늘어나면서 그 모양에 있어서도 보다 세련화되는 등 조심스러운 변화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출판업계의 구성단위인 출판사의 수가 5,097개사(89년 9월, 문공부 통계)에 이르고, 연간 출판 종수 또한 10여만종을 웃돌고 있는 국내 출판업계의 외형으로 따져본다면 이같은 변화는 물론 그렇게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현상은 아닐지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우리 출판업계의 또 다른 가능성을 모색하는 작업이라는 것에 대해선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우리나라 도서목록 중 가장 오래된 것은 고려시대의 불경을 조사한 목록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출판학회명예회장 안준근씨의 말에 따르면 "1472년 성종때 간행된 '몽산화상법어약록'이 기능상, 어느 정도의 틀을 갖춘 최초의 것"이라는데, 이미 그 목록에는 책명과 더불어 발행부수까지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 이보다 훨씬 뒤인 1897년에 이르러서야 우리의 현대적인 의미로서의 도서목록은 빛을 보게 되는데, 책의 가격이 명시된 「심상소학」의 목록이 그것이다.

국내출판사의 20%정도가 제작

1930년을 전후로 출판사의 도서목록은 그 얼굴을 달리한다. 우편요금을 명시한 '활동서해'의 도서목록(1922년)과 책 주문시의 주의사항을 실은 '영창서관'의 것(1930년)이 있으며, 중량계를 설명한 우편요금산출표를 적어둔

목록(한성도서)도 있다.

현재 5천여개사에 이르는 출판사 중 도서목록을 갖고 있는 출판사에 대한 확실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다.

다만 1986년 구간도서의 파악을 위해 교보문고가 1,400여개 거래 출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가 가장 최근의 자료로,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대상출판사 수 : 1,421개사 ▲수합된 도서 목록의 수 : 총 291종 ▲1장짜리 전단 : 181종 ▲팜플렛 형식(2~29면) : 33종 ▲소형책자(30면 이상) : 77종

이상은 당시 국내 출판사의 약 20%가 도서목록을 발행하고 있으며, 그 중 26%에 해당하는 출판사가 소형 책자의 도서목록을 만들고 있음을 밝혀준다.

한편 한국출판연구소(이사장 김병익)가 실시하고 있는 '출판사 실태 예비조사'의 도서목록 보유현황('90년 6월 5일 현재)에 따르면 총 4,600여개사에 발송된 질문서 가운데 853개사가 회송을 해와, 이중 486개사가 도서목록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을 했다. 4년전의 조사결과보다 훨씬 높은 비율의 출판사가 도서목록을 발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참으로 많은 수의 도서목록이 각 출판사로부터 제작되고 있으나, 내용상의 문제점을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의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종로서적 전병철씨(구매부)의 이같은 지적은 단지 도서명의 나열에서 벗어나, 질적인 향상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요지를 담고 있다.



출판사도서목록은 서점과 도서관에 주로 배포되며, 독서회원제를 운영하는 곳의 경우 일반독자들에게도 배포된다.

이러한 도서목록을 형태별로 살펴보면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뉘질 수 있는데, 낱장의(크기는 다양) 종이를 접은 것으로 펼쳐가며 보도록 만든 경우, 팜플렛 형식으로 그때그때의 신간도서 소개를 위주로 한 경우(중철)와 소책자 정도의 분량(무선철)을 묶은 것이 대부분의 도서목록을 차지한다.

이밖에도 책의 날개를 이용하거나 책말미의 몇 면을 활용해서 목록을 싣는 경우도 있다. 해당 출판사 종수의 많고 적음으로 인해 형태와 부피는 결정지어지는데, 단행본에 가까운 면수로 꾸며진 도서목록도 간혹 눈에 띈다.

지질은 대체로 도서용지 내지 모조지가 주종을 이루지만 낱장을 접지한 도서목록의 경우 고급용지를 사용하기도 한다. 표지와

내지의 지질이 고급화되면서 컬러화를 동반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기도.

전문서적(미술, 아동도서 출판사 등)을 내는 몇몇 출판사가 그 전문성에 맞춰 컬러화보를 게재하는 '단장'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다.

미술서적을 전문으로 출판하고 있는 열화당(대표 이기웅)은 지금은 중단된 신간소식지 「책과 선택」의 경험을 살려, 3년전부터 간간 발행된 350여종의 도서를 담을 그릇을 마련하고 있다. 급near년에 발행될 예정인 이 도서목록에 대한 관심이 모아진다.

발행시기가 일정치 않은 게 도서목록의 특징 중 하나이지만 상당수가 연초를 기점으로 해서 발행되고 있는데, 출판계의 성수기인 12월에서 3월까지를 염두에 두고 발행시기를

바다저작권회사

번역출판물 정보가 필요하십니까?
국제저작권 계약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좋은 책, 많이 읽히는 책을 찾고 계십니까?
바다저작권회사를 만나보십시오!

바다저작권회사를 성공적으로 이용하는 출판사가 늘고 있습니다.







새식구를 찾습니다.

모집부분 : 불어전공자/독어전공자
대우 : 45만원/보너스 300% 이상 / 점심제공
(기준 : 군복무를 마친 경력 1년 정도의 남자)
(기준 : 군복무를 마친 자기소개서 · 전학년 성적증명서
보내주실 서류 : 서류심사 → 번역시험 → 면접
뽑는 방법 : 서류심사 → 번역시험 → 면접
서류접수기한 : 광고가 게재된 날로부터 열흘
※ 편집 · 번역 경력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121-010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437-3 고려아카데미텔B/D 1702호

전화 : 312-9135, 362-3138
팩시밀리 : 393-9786

맞춘다고 볼 수 있다.

2~3년 주기로 발행하는 것이 관례

주기 역시 발행시기와 마찬가지로 부정기적으로 이는 출판사의 출판주기가 일정치 않은데서 오는 결과로 1년 혹은 2~3년을 그 주기로 삼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도서목록에 대한 중요성과 절대적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출판사의 인식부족에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출판문화협회나 협동조합의 「판매도서목록」 등과는 다르게 출판사에서 발행되는 도서목록은 다분히 판매선전용(trade catalog)의 색채가 짙다. 이런 도서목록은 몇 가지 기본적인 내용을 반드시 담고 있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 나름대로의 원칙과 체계로 내용이 집약되어야 한다는 애긴데, 현재 발행되고 있는 대다수의 도서목록은 적잖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책명, 저자, 판차, 출판 형태나 분류 및 내용에 대한 요약 등이 일정한 형식으로 기록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刷次가 版次로 둔갑 표시되거나 하는 잘못이 고의로, 실수로 저질러지고 있다. 이 점은 도서목록의 본래 목적인 필요한 책을 손쉽게 살 수 있도록 안내하거나, 도서관·서점에도 비치되지 않은 도서를 살필 수 있는 편리성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잘못을 시정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도서목록의 틀을 다져가는 뜻있는 출판사도 적지 않다.

KDC(한국십진분류법)를 표시한 「범우종합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도서목록은

형태별로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진다.

날장의 종이를 접은 것으로

펼쳐가며 보도록 만든 경우,

팜플렛 형식의 중철제본 카탈로그,

그리고 가장 많게는

소책자 분량의 단행본 형태가 있다.

발행시기는 대개 연초에 집중되며

발행주기도 2~3년간이 보통이다.

도서목록」이나 품질·절판된 도서를 연도별로 따로 모아 놓은 문예출판사, 일조각의 도서목록은 보다 친절한 편에 속한다. 도서공급처의 소개와 서점을 염두에 둔 '온라인 번호' 기제는 일반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저·역자의 직업(교수일 경우 학교를 표시) 기재한 출판사도 있으며 대학출판부는 논문집 목록, 학생회지 목차, 홍보자료 등의 정보를 소개하기도 한다.

주요 배포처가 서점과 정기독자, 도서관 등인 출판사 도서목록의 부수는 출판사의 외형과 정기회원제 운용의 유·무 등이 변수로 작용해, 수백부에서 1만부를 넘기도 한다.

예를 들어 1천종 가량의 출판물을 보유한 범우사(대표 윤형두)는 「범우종합도서목록」(249면·국판)을 거래서점, 필자, 고정독서회원 등과 일반독자에게 우편을 통해 매년 1만 5천부씩 발송, 배포하는데 무가지임에도 엄청난

난 양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편발송료(280원)를 받고 있다고 한다.

앞서 말했듯이 출판사 도서목록의 주요 배포처는 역시 서점과 도서관이지만 그 배포량이 편중되고 있어 이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배포처 확장에도 관심 쏠아야

“현재 보관중인 출판사의 도서목록은 50권 내외 정도입니다. 대개의 경우 실물을 직접 보고 도서를 구입하는 ‘현장수서’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목록만 보고 수서해야 할 때는 요긴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예비지식으로서의 효과도 있고요.”

매달 속보로 도착하는 신간 팜플렛이 많아 신간수서가 아닌 기간도서의 수서일 경우엔 불편하기도 하다는 마포시립도서관 사서과에 근무하는 임경자씨의 말이다.

한편 서울대도서관의 김삼례씨(수서담당)는 “금년도 신간도서속에 작년치를 중복해 넣어 곤란을 겪은 적이 있다”고 전한다. 출판사 도서목록의 정확성과 충실도에 대한 신뢰가 썩 깊지 못하다는 증거가 된다.

이와는 반대를 대형서점의 경우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다.

“분야별 서점 매장의 관리면에서 출판사 도서목록은 꼭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저희 서점의 요청에 의해 대부분 입수되는데, 그 양은 전체 거래 출판사의 70~80%에 해당되지 않나 싶어요. 제작주기가 일정치 않아 추가된 신간을 메모하는 불편함도 있으나 매장 직원들의 도서관리에 이로울 뿐더러 고객의 질문이나 요청에 답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됩니다.”

종로서적 선병철씨의 얘기와는 반대로 양평동에 위치한 동호서점(대표 김동명)의 경우 “1년에 기껏해야 3~4개의 목록이 들어오고 있다”고 해 대조를 보인다.

“외국의 경우 출판사 도서목록보다는 ISBN(국제표준도서번호)의 부여와 CD-RAM(Compact Disc-Read Only Memory)의 개발 등으로 발전하고 있는 총 목차의 효용이 뛰어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개 출판사별 목록은 전문출판사나 교재를 내는 출판사의 경우가 두드러지고 이러한 목록은 학교의 교수나 연구단체 등에 보내어지고 있습니다.”

이두영씨(대한출판문화협회 사무국장)의 말에서 우리의 출판사별 도서목록의 활로 개척의 열쇠가 주어지고 있는 셈이다. 우리 출판계의 발행은 낙후성을 쉽사리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출판사가 영세하여 편집조직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한 점 ▲출판사 중심 도서 회원제가 정착화 되어 있지 않아 그 수요량이 적다는 점 ▲여타의 상품에 비해 상품(책)선택의 기준이 메이커에 비중을 두지 않고 있다는 점

여기에 제작과 발송비용을 무시할 수 없는 출판업계의 사정이고 보면 지속적인 발행과 배포가 쉽지않은 않다는 결론이 나온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서목록의 새로운 움직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출판사별 도서목록의 앞날엔 자성과 배가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 최태원 기자

컬러에화집

돈이 보낸 편지

이의용 지음



돈이 보낸 편지를 받으셨습니까?

삶의 지혜와 감동이 출렁이는 寸鐵殺人의 메시지들.

진실은 단 한 마디로도 전달되는 것.

짧지만 깊고 긴 여운을 주는 예화 89편이 있습니다.

(150쪽 ₩ 2,800)

● 김철민
● 고독이라는 교만
● (212쪽 ₩ 2,500)

● 에세이집
● 내 놀던 옛동산
● (148쪽 ₩ 2,000)

도서출판 **대림기획**
전화 : 02-275-5296